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2004년도 표어 ◎

모혜사 성령이여 깨끗케 하소서(시51:10)

◎ 행동지침 ◎

- 1. 바른생활
- 2. 바른교회
- 3. 바른국가

† 발행인 : 이 종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영혼의양식 - 소신지서 강해

효과적 기도

(하박국 3장 1절 - 2절)



우리가 기도 할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부흥은 영어로 revival, 죽은 것을 다시 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은 복음을 통하여 죽은 자를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하박국 3장은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모세, 아브라함, 다윗 등 훌륭한 인물들이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한 흔적을 수 없이 찾을 수 있습니다. 본문의 선지자의 기도 역시 그들의 기도 못지않게 위대한 기도입니다.

하박국서는 1장에서 “왜”라고 하는 질문으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 당할 것이라는 대답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박국이 기대했던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를 하거나 상담을 하러 갈 때 이미 그 대답을 가지고 갑니다.

하박국 선지자 역시 기대하는 답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 기대에 못 미치는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 “어째서 그렇습니까?”라며 항변합니다.

하나님은 하박국의 질문에 대해 그 원인을 말씀하십니다.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합 2:4). 이스라엘은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매를 맞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라고 하는 위대한 메시지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십니다.

“오직 여호와와 그의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 지니라 하시니라”(합 2:20).

하나님께서는 오직 잠잠히 예배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가 3장에서 시작됩니다.

문제 중심으로 기도를 하면 기도를 한 후에도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를 하면 응답에 관계없이 감사와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시 바벨론으로부터 소생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아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선지자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참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무디 성경학교의 교장이었으며 세계적인 성령학자였던 토레이 박사는 자기 이름으로 하는 기도, 자기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께 접근하는 사람의 기도는 결코 응답 받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요구할 권리를 포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갠주실 의무를 가지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신이 행했던 선행에 근거한 기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근거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훌륭하고 더 신실하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께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적인 어떤 생각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십니다. 그 분은 죄인 된 자에게 자비를 베푸시지만 스스로 의롭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기도는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당 뒤에서 머리를 들지 못하고 기도하던 세리처럼 겸손한 자세와 마음가짐으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1. 하나님께 접근하는 기도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2절).

하나님께 접근하는 효과적인 기도는 겸손한 기도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만에 가득 차서 자신이 마치 하나님께 기도 할만한 권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을 설득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겸손한 기도입니다.

3장에 와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소문을 듣고 하나님에 대해 경외심을 갖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어째서 이스라엘이 망해야 하느냐”고 하면서 아주 당당한 기도를 했던 그가 이제는 전혀 다른 기도를 합니다.

그가 이같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겸손한 기도를 하게 된 것은 기도에 대한 초점이 틀려졌기 때문입니다. 앞의 기도가 하박국 자신이나 이스라엘이나 바벨론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었다면 3장에서는 하나님께 맞춰져 있습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인간의 수준에서 이스라엘과 바벨론을 비교하며 하나님께 항의에 가까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보니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성과 영원성을, 하나님의 다스리심 앞에서 자신의 생각은 물거품 같은 것임을 알게 되었고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게 되면 영적 세계를 보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찾게 되고 성숙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수준에 이르게 되면 모든 관심이 하나님의 영광에 모아지게 됩니다. 나 중심으로,

2. 찬양의 기도

예배는 영어로 worship, 가치를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는 하나님께 하나님으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살펴보면 감사는 있으나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부족합니다. 기도의 순서는 영어로 Acts(사도행전)의 순서로 하면 좋습니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후에 Adoration, 찬양이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으로부터 찬양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 곧 진능하시고 자비하심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Confession, 죄를 자복하는 일, Thanksgiving, 죄에서 구원하심에 감사, 사죄의 은총에 대한 감사, 그리고 Supplication, 청원의 순서로 하면 됩니다.

우리가 기도 할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부흥은 영어로 revival, 죽은 것을 다시 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은 복음을 통하여 죽은 자를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교회사를 보면 부흥 운동은 가장 악한 시대에 일어납니다. 지금은 영적 광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일이 부흥케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효과적인 기도는 그의 공회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공회를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공회함을 힘입어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3000명 목회자들 3.1절 금식성회 연다

- 회개와 민족 복음화 위해 -

3.1절을 기해 '공산 독재종식 민족복음화 목회자 금식성회'가 우리 교회당에서 열린다.

조국이 풍전동화 격으로 위기 가운데 있는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어 삼천여 목회자들이 사도 바울처럼 민족이 지은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고 참회하는 이번 모임에

서는 기독교 이단으로 역사상에 등장했던 공산독재를 중식시키고 민족복음화의 햇불을 올림으로 복음화 된 통일 조국 건설에 박차를 가하게 될 것이다.

많은 목회자들의 참여와 성도들의 뜨거운 기도와 후원이 있기를 바란다.

주력부대로 금요철야기도회 불을 당긴다

2월6일 금요철야기도회 부터 시작

우리교회의 끊이지 않는 기도의 불길인 금요철야기도회를 더욱 활성화하여 교회적으로 기도의 불을 당기고자 오는 2월6일 금요철야기도회부터 기도의 주력부대들이 선두에 선다.

주력부대들의 기도의 헌신으로 올해 우리교회는 기도가 충만하고 뜨거운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도록 한다.

금요철야기도회는 매주 금요일 밤 9시 30분 101호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열리고 있다.

금요철야기도회 담당부서	월·일	담당부서	월·일	담당부서
금요철야기도회	2. 6	유아부	5. 7	권사회
	13	유치부	14	당회
	20	유년부	21	유아부
	27	초등부	28	유치부
	3. 5	중등부	6. 4	유년부
담당부서	12	고등부	11	초등부
	19	대학부, 청년부	18	중등부
	26	장년부	25	고등부
	4. 2	사랑부, 에바디부	7. 2	대학부, 청년부
	9	새가족부	9	장년부
	16	요리문답부, 신혼가정부	16	사랑부, 에바디부
	23	디아스포라부, 신앙강좌부	23	요리문답부, 신혼가정부
	30	스데반회	30	디아스포라부, 신앙강좌부

vision 2020 후원자의 밤

오늘 저녁 6시30분 만나홀에서

vision 2020 운동본부는 오늘 저녁 6시 30분 만나홀에서 vision 2020운동 후원자와 후원을 원하시는 성도들을 모시고 설명회와 식사를 함께하는 후원자의 밤을 개최한다. 2월1일 현재 신청자는 243명이다.

한편 금주 후원자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 강명신 강유리 강운숙 강중심 강진환 강관익 고석태
- 고연우 권혁달 김금복 김금준 김남웅 김대용 김사무엘
- 김상태 김선철 김수한 김숙자 김시은 김영례 김영정
- 김영주 김요한 김용호 김은태 김인수 김일순 김정두
- 김정순 김주연 김중근 김진희 김초일 김현수 김현주
- 나점균 노문환 노중환 민병주 민순구 박계순 박두영

- 박명석 박상희 박서현 박영선 박조현 박종민 박찬성
- 박태선 백도환 백영희 변승균 서명조 서영세 손재결 송기후
- 송영준 신규철 신진주 신종성 신준명 안명덕 안미경 안창휘
- 양미숙 여현진 오광환 오영숙 오유식 오은숙 오형철 옥유진
- 옥준용 왕경래 유다솔 유인정 윤갑숙 윤명구 윤정식 윤찬오
- 이갑연 이경구 이계홍 이관규 이근대 이덕성 이동수 이수경
- 이수련 이영자 이영조 이원형 이우진 이웅선 이준호 이태정
- 이혜선 임광호 임인숙 임훈규 장근우 장영지 장정현 장지원
- 전광영 전영복 전인숙 정기동 정병무 정용운 정유정 정중무
- 정현숙 조영자 조정옥 주동재 차도훈 최광성 최명수 최양진
- 최옥조 최윤정 최정인 최희숙 하인선 한궁수 한상준 함은희
- 홍광숙 홍성주 홍유미 홍일성 홍혜란 홍보추자 황선희

연세대학교에 교목 파송기로

김재진 협동목사를 신과대학에 파송기로

우리교회는 현재 명지대학교 기숙사에 황선철 목사를 전도목사로 파송하여 학생들의 신앙 상담 등을 담당케 하고 있는데 전도의 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판단되어 이에 따라 당회는 더욱 학원 선교의 활성화를 위해 현재 우리교회 협동목사로 수고하고 계시는 김재진 목사를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교목으로 파송기로 하였다.

김재진 목사는 앞으로 목사 예비생들에게 영적 부흥을 일으키고 연세학원 복음화의 사명을 감당케 된다.

성도들의 기도의 후원을 바란다.

세례준비·학습준비 안내

세례준비반: 주일1부 예배 후 609호
학습준비반: 주일1,2부 예배 후 602호

우리교회는 본 교회에 등록된 학습교인으로서 세례 받기를 원하는 성도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충실한 교육을 통해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세례준비반'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학습을 받은 모든 성도들 그리고 입교(15세 이상), 개종을 하게 되는 성도들은 누구나 등록하여 총 8주간의 교육을 받게 된다. 세례준비반은 현재 서명철 목사가 담당하고 있다.

또한 학습을 받기를 원하는 성도들은 '학습준비반'에 등록하여 교육을 받으면 된다. 학습을 받으실 성도의 자격은 본 교회 등록 후 6개월을 경과한 분으로 15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세브란스병원 건축헌금 지원

한국 최초의 기독교 의료기관인 세브란스 병원은 외국 기독교인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세워졌으나 120년이 지난 지금 새 병원을 건설하면서 한국교회의 참여를 요청한 바 있어 우리교회는 복음전파에 유익한 이 병원 건축에 참여키로 하였다.

이 소식을 들은 한 성도의 가정에서 특별헌금을 해주어 전액을 세브란스 병원에 기증하였다.

핸드 차임 구입

II부 예배 시작시 사용키로

현재 우리교회 II부 예배는 그레이스 핸드벨 콰이어의 맑은 차임 소리를 통해 시작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 사용하고 있는 차임은 파이프로 르간이 예배의 주악기로 역할을 하게 됨에 따라 급하게 외부에서 빌려서 사용하고 있어 다시 반납을 해야 한다. 따라서 교회는 5 Octave의 차임을 구입하여 II부 예배 시작 시에 사용키로 하였다. 그레이스 핸드벨 콰이어가 앞으로도 계속 더욱 아름다운 멜로디로 찬양을 돌릴 수 있도록 기도한다.

금주의 성구

그들이 그 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낫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창3:8-9)

Then the man and his wife heard the sound of the LORD God as he was walking in the garden in the cool of the day, and they hid from the LORD God among the trees of the garden. But the LORD God called to the man, "Where are you?" (Genesis 3:8-9)

지위자를 만나다

진정한 찬양은 삶으로 드리는 것

최동규 집사(가브리엘 찬양대 지휘자)

올해 1월 첫 주, 1부 가족예배의 가브리엘 찬양대 지휘자로 임명된 최동규 집사는 연세대 교회음악과를 졸업하고 독일로 건너가 부퍼탈 국립음대를 졸업, 1992년 쾰른 국립음대 최고연주자 과정을 졸업 (Konzertexamen 취득)하고 현재 한일장신대에서 교회음악을 강의하고 있다.

가족으로는 아내 박경원 집사와 초등학생 한솔이.

최동규 집사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고등학교 3학년 때. 노래를 잘 부르는 덕에 이전부터 교회 찬양대원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고3 여름, 수원에서 열렸던 10대 선교회 여름수양회에서 큰 은혜를 받고 주님과 진정한 관계를 갖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진로를 급선회, 종교음악을 택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당시에는 집안의 반대가 거셌으나 지금은 부모님과 형제들이 그의 전도로 말미암아 모두 믿음을 생활을 잘 하고 있다.

현재 한일장신대에서 교회음악과 합창, 성악파트의 전임교수로 재직 중인 그는 예배학과 교회음악을 공부하며 켜지 않은 시간 동안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와 찬양은 어떤 것일까에 대해 깊은 고민을 했다. 결국 그가 내린 결론은 이렇다. 음악은 결국 도구일 뿐, 찬양은 삶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음악에 대한 관심보다는 영적 예배를 위한 노력이 더 중요하며 이런 의미에서 찬양대원은 성령 충만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은 성경을 통하여 배울 수 있으며 성경에는 찬양과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바와 가르침



이 나와 있으므로 결국은 말씀에 충실한 것이 온전한 찬양을 드리는 길이라고 한다.

그는 예배학을 공부한 한 사람으로 서울교회에 와서 예배의 살아있음을 느끼며 자신의 신앙에 또 한 번의 도전을 받았다고 한다.

최동규 집사는 어느 교회는 1부 예배의 찬양대원은 그 교회의 특공대원이라고 말한다. 왜냐 하면 이들은 어느 누구보다 일찍 교회에 나와야 하고, 주일 첫 시간을 잘 장식해야 하기 때문이다.

최동규 집사는 가브리엘 찬양대의 첫 인상이 무척 젊고 밝았다고 말한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살아있는 정기를 느꼈다고. 그래서 그는 가브리엘 특공대를 이끌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드리는 찬양을 드리며 평직 전투에서 승리하는 진정한 찬양대의 지도자가 되기를 소망한다.



김인제 집사(임마누엘 찬양대 지휘자)

마한가지로 올 1월 첫 주 3부 청년예배의 임마누엘 찬양대 지휘자로 임명된 김인제 집사는 단국대학교 작곡과를 졸업하고 미국 일리노이스대 합창지휘과 박사과정을 수료하였으며 현재 이화대학교에 출강하고 있다.

가족으로는 강미혜 집사와 두 딸 수린과 미린이 있다.

외조부께서 일찍이 일본과 만주로 전도 활동을 펼치셨던 가정에서 모태신앙인으로 태어난 김인제 집사는 한 번도 교회 밖으로 나가본 적은 없지만 오랜 세월 동안 모태신앙인이 흔히 가질 수 있는 미지근한 신앙을 벗어나지 못하겠다고 고백한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고백한 사건이 생겼으니 그것은 바로 대학 입시를 실패한 일이었다. 그리고 그해 겨울 신앙 수련회에서 하나님의 크신 위도와 은혜를 힘입어 실패의 쓴 잔을 마시며 잠시 좌절했

던 시간은 자신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없이 헌신된 종으로 훈련시키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세미하게나마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학부에서 성악과 작곡을 공부하고, 대학원에서는 지휘를 공부하며 온전한 찬양을 드리기 위한 지휘자로 거듭나는 노력을 했다.

김인제 집사는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은 마땅히 찬양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찬양대는 절대적으로 헌신된 자들이 모여야 한다고 힘주어 말한다.

그는 임마누엘 찬양대가 실력이 있는 찬양대, 자랑거리가 많은 찬양대가 되기보다는 찬양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찬양대가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일단 찬양대원으로 헌신하기로 작정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철저히 프로 근성을 가지고 시간을 엄수하며 연습에 열심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그는 이중윤 목사님의 세련되었으나 절대로 진부하지 않으며 순수한 메시지가 인상적이었고, 무엇보다 활기에 넘치는 교회 분위기가 매력적이라고 말한다.

올해 부활절 연주로 절기 연주 첫 테이프를 끊게 될 임마누엘 찬양대는 이미 레파토리 선정을 마치고, 2월 첫 주부터 주중 연습을 시작하며 맹연습에 돌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마지막으로 김인제 집사는 찬양을 부르는 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겸손히 찬양할 때 듣는 이들도 함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는 한없는 영광이 되는 현장감 있는 찬양을 하는 임마누엘 찬양대로 이끌어가기 힘들 것이라고 한다.

히 숙(편집부)

부서 탐방-사랑부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9시 가족 예배 직후 교회정문 앞에서 있는 대형버스를 볼 수 있다. 그 버스 안에 앉아있는 장애우 한 사람 한 사람을 안아 내리는 청장년의 모습이 다소 힘들어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다. 하지만 표정만큼은 더없이 맑고 밝아 보인다. 이들을 휠체어에 태워 미스바 홀로 옮기는 이들은 사랑부 교사들이다.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한 이들의 사랑의 손길은 곳곳에서 엿볼 수가 있다. 멀리 상일동에 있는 '주몽재활원'에서 약30여명의 친구를 교회버스에 실어 오는 일이며 '나사로' 집에 20여명을 봉고로 데려와야 하는 것이다. 현재 약 60여명의 장애우들은 이용식 목사님의 지도 아래 33명의 교사들의 헌신적이고 남다른 사랑과 열심에 하나가 되어 올해의 우선 목표인 '하나님을 바르게 알자'는데 온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들은 예배를 전심전력으로 가장 최상의 집중력을 다해 드린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하나님의 사랑에 갈급한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이다. '하나님' 한 마디를 부르기 위한 심정은 더없이 처절하며 간절하다. 예배 후에는 공과공부 시간으로 유치부와 초등부 두 파트로 나누어 하나님 그분을 알리기 위해 혹은 알기 위해 공과공부책과 나름대로 12년간의 지혜를 모아 하는 공부이기도 하다. 공과공부가 끝나면 율동 시간으로 몸을 풀며 재활을 겸하여 더불어 사는 기쁨도 나누고 있다. 또한 식사 시간에는 교사들이 이들이 먹기 좋게 여러 가지 배려도 잊지 않는다. 이에 이승우 사랑부 부장은 교사의 학생에 대한 사랑과 열심에 자부심과 더불어 깊은 감사를 한다고 거듭 말한다.

한편 사랑부에서는 전도의 한 방법으로 각 동사무소 재활담당에게 공문을 보내 장애우들 실태를 파악하여 전도하고 있으며, 동사무소마다 팜플렛을 비치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그 효과가 미미하다고 안타까워한다. 우리 정서상 장애우를 집안에만 있게 하거나 가족의 반대로 하나님을 모르는 주위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교인 여러분들의 관심을 간곡히 당부한다.

더불어 교사들은 올 한해도 사랑부 가족이 더 건강하여 한 사람도 병원에 가는 일이 없기를 소망하며, 처음 교사로 지원했을 때 이들을 돕는다는 생각이었으나 지금은 오히려 이 친구들의 순수한 마음과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배우며 너무나 큰 사랑에 감격한다며 필요한 교사들이 더 많이 지원하여 1:1의 지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한다.

지금까지 관심과 사랑을 가져준 교인 여러분께 감사와 변함없는 고도를 부탁드립니다. 유영희(편집부)



장로가정 탐방 - 김대호 장로 가정편

홍안에서 백발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막 9:23)

김대호 장로님의 서재에 걸려 있는 말씀 한 구절은 장로님의 믿음과 생활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다. 자신의 이름을 넣어 암송하기를 즐겨 하시는 장로님은, 생의 막다른 골목이나 시련이 다가올 때마다 이 말씀의 거울에 비추며 살아 오셨다.

92년부터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의 말씀을 사모하여, 또한 불같은 말씀을 전하시는 이종윤 목사님의 강단을 사모하여, 서울교회의 창립 초기의 현장을 지켜왔던 장로님은,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뜻이 역사하시는 서울 교회를 지금도 새신자처럼 수줍고 애뜻한 마음으로 섬기고 계시다.

김 장로님은 현재 할렐루야 찬양대(대장)를 섬기고 계시는데, 매주 예배 전후로 곱절의 찬양을 드리는 연습 시간이 참 소중하고 감사하시다고 한다. 일곱 살난 막내아들의 손을 붙잡고 매일 새벽제단을 쌓으러 교회로 향하셨던 어머니는 장로님 가정에서 처음으로 주님을 영접하셨던 복음의 씨앗이었다. 어머니는 마지막 유언으로도 “너희는 주님 뜻대로 살아가라.”는 말씀을 남기셨는데 자녀들을 위해 늘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주시던 모습은 아직도 잊혀지지 않고 장로님 가슴속에 각인처럼 새겨져 있다.



김장로님에게는 중학생 시절, 잊지 못할 사건이 있었다. 2시간 안에 수술을 받지 못하면 안 되는 위급한 병에 걸려 병원으로 실려 갔는데 마침 찾아간 병원이 기독교 병원으로, 주일에는 수술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장로님과 어머니는 이 때 주께서 살려 주시면 평생 주의 종이 될 것을 간절히 기도하였는데, 당시 병원의 원장이자 교회의 장로였던 의사 선생님이 직접 집도를 맡아 수술이 성공리에 끝났다.

장로님은 서울로 올라와 작은 점포를 열게 되었는데, 이때부터는 건강과 재물의 축복이 넘치게 주시어 가족을

복음화하고 주변에 말씀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채워 주셨다. 질그릇이 되라고 하시면 질그릇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쓰이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셨다.

지금 새가족부 교사로 봉사하시는 남순덕 집사님과 슬하에 은미, 두일 남매를 두신 장로님은, 남집사님과 결혼을 결심할 당시부터 처가댁을 모두 복음화 한다는 사명과 소망으로 양쪽 가문을 똑같이 사랑하며 섬겨오셨다.

장로님은 올해로 60세, 7세 홍안의 소년이 이제는 백발의 황혼기에 접어들고 있다. 돌아보면 하나님이 간섭 안 하신 게 없고, 애타게 기도할 때마다 응답 안 해주신 것이 없고, 축복 안 해주신 것이 없어서 감사하고 감동할 뿐이다.

장로님은 특별히 성도들에게, 편 가르기와 분열, 거짓과 위선이 만연한 이 시대에 서울 교회만큼은 말씀 위에 우뚝 서서 하나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해야 할 것과 무엇을 맡기 시던지 최선을 다해 그 일을 감당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당부하셨다.

김 장로님은 올해 초 심장병 치료를 위해 큰 수술을 두 번이나 받고 더욱 간절하고 감사한 마음을 얻게 되었는데, 이제는 건강 주시는 대로 묵묵히 맡겨진 교회의 일을 감당하며 지내기를 소망하신다. 나소정(편집부)

만민에게 전도

전도가 삶의 한 부분이 되었어요



유수진(대학부)

언젠가 대학부 안에서 전도학교가 시작된다. 목사님의 말씀에 약간의 부담감을 갖고 전도학교 교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저는 이 시간에 전도에 대한 지식과 기술들을 배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저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매주 강의가 끝난 후의 전도 보고였습니다.

한 주 동안 내가 어떻게 전도에 열정을 다했나하는 것을 발표하는 시간이었는데 정말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부담 되는 시간을 통해서 저를 움직여 주셨습니다.

어느 날인가 강의 시간에 목사님께서 마음이 굳어 있는 어른들보다는 새순과 같은 어린아이들에게 전도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피아노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매일 아이들을 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아이들에게 접근하기 쉽고 알아듣기 쉬운 색지전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학원에서 저희 반 아

이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너무 좋아하면서 또 해달라고 조르기도 했지만, 또 어떤 아이는 "우리 아빠가 절대로 그런 거 믿지 말고 했어요!!" 라고 말하기도 해서 나를 당황케 했습니다.

아이들은 무엇보다도 부모님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런 아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주 월요일 날, 놀랍게도 그 아이는 지난주에 교회를 갔었다고 제게 자랑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역사였습니다. 저는 언제나 전도를 하면서 마음이 다급해짐을 느낍니다. 왜 이 좋은 선물을 거저 주시는 은혜를 모르고 지나치는 것인지.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이 이렇게나 많이 있는 것인지... 주를 믿는 이들이 절대로 안일할 때가 아님을 느꼈습니다.



전도학교 공부를 하는 동안 받은 많은 훈련은,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도 전도를 시도하고, 택시 기사 아저씨에게도 전도를 하며, 목사님 설교 테이프도 드리는 등 많이 담대한 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도하는 것이 어느 정도 내 삶의 일부분이 되었습니다.

전도학교는 끝났지만, 복음의 씨를 뿌리고 기도함으로 예수님이 주신 명령을 좇아 이 기쁜 소식을 열심으로 전하는 자가 되길 기도합니다.

동정

- 개업: 김성은집사(1교구) 강남썬터약국 553-1608
박혜미성도(1교구) 글로벌아파트노학원 539-5725
- 이사: 박순옥권사 4교구 서초구 서초동 현대A. 102/101 전화 586-9437
- 주간 식당봉사: 베드로남선교회(2월1일) 바울남선교회(2월8일)
- 금주의 식사: 김태수 집사 · 김은희 집사 (부친 장례를 마치고)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T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케이블 CH 42(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162(기독교방송) 매주 수 오전 7시
라디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LKY 98.1 MHz(극동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기독교 방송) 생명의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인터넷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산나넷 - http://hosanna.tv ■ 기독교 TV - http://www.cts.tv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겨울수련회 · 성경학교를 통해 큰 변화를 체험하도록
2. 병상에 있는 환자들, 출타자, 실직자, 소외된 자, 자녀들을 위하여
3. 온 교회 성도들이 주일학교 학생이 되고 전도대원이 되도록
4. 나라의 안녕과 번영을 위하여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 예배	I 부 오전 9시
	II 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 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30분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교회약도 :

